



도심화에 따른 작전계획 현실화 방안

국민대학교 박 휘 락 교수





도시화에 따른 작전계획의 현실화 방안

박휘락(국민대학교 교수)

I. 서론

1970년대부터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한국의 도시화도 급진전되었다. 과거에는 들과 산 사이에 도시가 존재하였지만, 현재는 도시 사이에 들과 산이 존재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70년 50.10%에 불과했으나 1990년 81.95%, 2000년 88.35%, 2011년도 91.12% 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2012년 처음으로 0.08%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91.04%를 차지하고 있다.⁴⁵⁾ 이러한 도시화에는 전방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수도권 북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도시가 개발되고, 신도시와 신도시 사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역이 우후죽순처럼 성장하면서 도시와 도시의 구분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통상적으로 METT, 최근에는 METT-TC라고 한다. 임무(Mission), 적(Enemy), 우군부대(Troops), 그리고 지형과 기상(Terrain and Weather)이고, 추가적으로 시간(Time)과 민간인(Civilian)을 포함시킨다. 이 중에서 도시화로 '지형과 기상' 그리고 '민간인' 요소에서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당연히 군사작전의 수행개념도 달라져야 하고,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세부적인 계획인 작전계획(OPLAN: Operational Plan)도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작전은 그 당시의 METT-TC를 고려한 작전명령(OPORDER: Operational order)에 의하여 시행되는데, 상황이 급박하여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작전계획이고 다. 작전계획은 “실제 또는 잠재적 우발사태에 대비하여 준비된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한 계획”(Any plan for the conduct of military operations prepared in response to actual and potential contingencies)⁴⁶⁾으로서 전쟁준

45) 국토교통부, “작년 우리국토 여의도 면적 14배 늘었다,” 「보도자료」(2013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 「2013년도 국토 연차보고서」(서울: 국토교통부, 2013).

비에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문서이지만, “전쟁의 첫 번째 사상자는 작전계획이다”(The first casualty of war is the operation plan)이라는 서양의 격언처럼 실제 전쟁이 발생하면 작전계획대로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작전계획은 변화되는 제반 요소를 반영하여 수시로 변화 및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요체이다. 그래야 준비된 대로 싸우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 동안 진행되어온 한국의 도시화는 군사작전의 전반적인 수행개념, 그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시킨 작전계획에 심각한 변화 요소를 제기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빌딩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방어진지를 편성할 수는 없고,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변모한 지역에서 야지에만 방어진지를 편성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이 변화되는 ‘지형과 기상’ 및 ‘민간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작전개념과 계획을 발전시켜왔는지는 의문이다. 방어작전의 수행개념과 작전계획의 발전은 혁신적 변화에는 미흡한 상태이고, 여전히 산야에 진지를 구축하는 선형 방어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과거에 구축해놓은 진지를 포기할 수 없어서 방어계획을 수정하지 못하는 측면도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도시화, 특히 전방지역 그 중에서도 수도권 서울 북방의 접근로에서 발생한 도시화가 한국군의 방어개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기본적인 방향에서 방어개념이 어떤 방향으로 달라져야 하며, 그 결과로 한국군이 검토 및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도시지역 작전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도시지역 작전의 특징

고대로 도시는 군사작전에 유리한 소재가 아니었다. 손자병법에서도 성(城)을 공격하는 것은 최악의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최하의 방법은 적의 성을 공격하여 아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성을 공격하는 법은 부득이

46) Joint Chief of Staff,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Joint Pub 1-02 (Washington D.C.: DoD, 15 March 2014).

한 방법으로서 전쟁무기를 제조하고 기계 등을 구비하는데 3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달성할 수 있다. 적을 공격하기 위한 거인(흙산)을 만드는데 또 3개월이 걸린다”(謀攻편)라고 설명하고 있다. 야지에서의 작전과 달리 도시지역에서는 건물과 인구의 밀도가 높아서 작전의 진행속도가 느릴 것이고, 특히 건물과 주민들을 함부로 파괴 및 살상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하여 상당한 제약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대에 들어서 대형빌딩이 일반화됨에 따라 2차원적인 전통적 군사작전 공간을 3차원으로 변모시키고 있어 도시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은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 되었다.

한국군의 경우 아직 도시지역 작전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미군의 교리를 중심으로 도시지역 작전의 특징을 살펴볼 경우, 미군은 도시지역 작전은 전통적인 작전에 비해서 다음의 세가지 요소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세가지 축”(urban triad)이라고 말하는 사항으로서, 인간이 만든 복합적인 물리적 지형(a complex man-made physical terrain), 상당한 규모와 밀도의 인구(a population of significant size and density), 지역이 의존하고 있는 기반시설(an infrastructure upon which the area depends)이다.⁴⁷⁾ 첫 번째 요소인 인공적 물리적 지형의 경우 도시지역 작전에서는 인간이 만든 건축물들이 자연적 지형보다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도시별로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군사작전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 두 번째, 도시지역은 수만에서부터 수백만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군사작전을 계획하거나 수행할 수 없다. 이들과 잘 협조하거나 그에 맞는 작전개념을 수립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존재가 작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군사작전의 범위와 내용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 세 번째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도시의 기능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정 도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광범성을 지니고 있고, 이것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의 안정은 물론 군사작전의 지속에도 필요하다.

위에서 제시한 세가지 축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이들은 상호 결합 및 작용하고, 그 결과로 다양한 도시들의 다양한 특성

47) Joint Chief of Staff, *Joint Urban Operations*, Joint Pub 3-06 (Washington D.C.: DoD, 20 November 2013), p. I-2.

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도시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도출하는 것도 어렵고, 특정한 도시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한다. 지형이 고정적인 야지에서의 작전에 비해서 도시지역 작전은 다양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변모하는 특정도시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즉 “도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한다. 공공시스템의 오작동, 재난, 자연재해, 무질서, 범죄, 시위, 폭동 혹은 침략과 정복 등은 도시를 반응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게 한다. 도시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⁴⁸⁾

미 해병대에서는 “도시지형에서의 군사작전”(MOUT: Military Operations on Urbanized Terrain)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공물이 지배적인 특징을 차지하는 복합적인 지형이나 부근에서 계획 및 수행되는 군사작전”이다.⁴⁹⁾ 미 해병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시의 스탈린그라드(Stalingrad, 소련), 오르토나(Ortona, 이태리), 아첸(Aachen, 독일), 아른헴(Arnhem, 독일), 셸부르(Cherbourg, 프랑스), 마닐라(Manila, 필리핀) 등에서의 도시지역 작전, 1950년 한국전쟁에서의 서울, 1967년 6일전쟁에서의 예루살렘(Jerusalem, 이스라엘), 1968년 베트남 전쟁에서의 휴(Hue, 베트남) 등 20여개의 도시지역 작전을 분석한 후 군사작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시지역 작전에서는 정보가 결정적이었고, 기습도 중요했으며, 소부대의 보병중심 작전일 수밖에 없고, 보병의 보호를 받는 기갑이 효과적이었으며, 포병사격은 적 보급이나 이동을 방해하는 데 더욱 유용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지역에 대한 적의 군수지원을 차단하는 데는 항공작전이 효과적이었고, 방어부대의 규모나 질과 상관없이 공격부대는 상당한 댓가를 치러야했으며, 제병협동작전이 필수적이었고, 도시지역작전은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도시를 고립시키는 것이 최선이었고, 신속하면서도 융통성있는 군수지원이 필요했으며, 근접 의료지원이 요청되었고, 지휘관은 도시지역에서의 전술적 공방보다 더욱 넓은 시각에서 작전을 이해 및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시하

48) Roger J. Spiller, *Sharp Corners: Urban Operations at Century's End* (Fort Leavenworth, Kansas: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Press, 2001), p. 98.

49) U.S. Marine Corps, *Military Operations on Urbanized Terrain (MOUT)*, MCWP 3-35.3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Navy, 26 April 1998), p. I-2.

고 있다.⁵⁰⁾ 미 합참에서도 도시들은 기술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군대의 이점을 감소시키고, 인력중심의 지상작전이 될 수밖에 없으며, 작전소요 시간이 늘어나고, 민간인 사상자가 증대되며, 작전적 제약사항이 다양하면서도 증대된다고 평가하고 있다.⁵¹⁾

2. 도시지역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도시지역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사람마다 다르게 분석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한국군에서는 심층깊게 정리해둔 것이 없어서 미군의 내용을 참고하고자 한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도시지역 작전에 대한 교훈을 핵심사항 위주로 정리한 것으로서, 미군에 의하면 도시지역 작전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⁵²⁾

첫째, 도시는 기술적 우위에 있는 군대의 이점을 감소시킨다. 도시지역은 사거리와 관측력을 약화시키고, 지휘통제 및 통신을 어렵게 만들며, 항공작전도 곤란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수지원도 쉽지 않고, 민간인과 기반시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제약사항도 첨단 무기 및 장비를 구비한 군대에게는 불리하다.

둘째, 도시지역 지상작전에서는 화력에 비해서 기동이 중요하다. 군사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도시지역에서는 빌딩을 완전히 소탕하거나 기반시설과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군인들은 한편으로 전투를 하면서 또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안정화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등 과제가 많아지고, 따라서 다수의 인력이 필요해진다.

셋째, 분권화 지상작전이 필수적이다. 부대들은 빌딩이나 지하통로, 거리, 골목으로 분산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부대 작전이 일반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지휘통제가 어렵고, 피아식별도 쉽지 않으며, 정보를 공유하거나 표적을 식별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넷째,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전이 된다. 도시지역에서의 작전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 지도상에서는 얼마되지 않은 크기의 도

50) Ibid., pp. I-9-I-20.

51) Joint Chief of Staff, *Joint Urban Operations*, p. vii-viii.

52) 다음 사항은 Joint Chief of Staff, *Joint Urban Operations*, pp. I-5-I-7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다.

시도 3차원으로 확장되면서 전투가 일어나는 공간은 급격히 확대되고, 빌딩이나 빌딩 내의 구분된 공간들을 하나하나 소탕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야지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에 의하여 수립된 전략 및 작전계획의 수정될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도시지역작전에서는 상당수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일반적인 군사작전에 비해서 더욱 엄격한 교전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빌딩에 제한받아 특정 무기는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직사화기보다는 포병 등의 곡사화기가 더욱 유용해질 것이고, 특히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밀포탄의 유용성이 커질 것이다. 도시지역 작전에서는 언론 또는 주민들에 의한 군사작전 상황의 보도가 활성화될 것이고, 지휘관은 그 당시 진행되는 군사작전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고려해야할 수도 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도시지역 작전에서는 지상군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⁵³⁾ 빌딩과 같은 구조물을 장악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병의 숫자가 절대적이 될 것이고, 공중화력의 위력은 제한될 것이며, 무엇보다 시민통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숫자의 지상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군사작전과 주민보호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자 한다면 군인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도시지역 교전의 경우 1인당 전투공간이 매우 좁아져서 야지전에 비해서 이동거리가 짧아지고, 상황이 급진전되며, 신속한 결심과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진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의 야지전에서는 1인당 전투공간이 31,000m³였으나 도시에서는 769m³였고, 1973년 중동의 10월 전쟁에서는 야지전의 1인당 전투공간이 40,000m³였으나 도시는 909m³였다.⁵⁴⁾ 따라서 좁은 공간에서 모든 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도시지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도시지역은 방어에 유리하다는 것이다.⁵⁵⁾ 빌딩을 비롯한 대형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지역의 특징은 공격부대의 숫자와 장비의 우위를 상쇄해버리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건물과

53) Ibid., p. I-7.

54) 김영수, “능력에 기초한 도시지역 작전(MOUT) 전력기획,”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p. 10.

55) Joint Chief of Staff, *Joint Urban Operations*, p. I-7; U.S. Marine Corps, *Military Operations on Urbanized Terrain (MOUT)*, p. 3-1.

시민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시지역 작전의 경우에는 공자에게 다양한 교전규칙(민간인 살상 금지 등)이 부과되어 자유로운 공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방자는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효과적인 방어진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방어준비를 한다면 수적으로 열세한 병력으로도 다수의 공격부대를 막아낼 수 있다.⁵⁶⁾

다만, 어떤 도시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포위하여 고립시킬 경우에는 공격부대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가전을 회피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가전을 감수하더라도 공격부대가 민간인들을 살상하거나 민간인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개의치 않을 경우 도시지역은 공격부대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 시민들을 방패로해서라도 철저하게 방어하려면 도시지역이 유리하지만 시민들의 피해를 감수할 수 없다면 도시지역에서의 방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특히 방자가 지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계적인 방어준비를 갖추지 못한다면 도시지역은 오히려 방어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당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작용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도시지역 특성을 잘 활용할 경우에는 공격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리할 수 없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방어라고 하여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3. 방어에 대한 도시지역의 방향

도시지역은 주민의 수가 많기 때문에 군사작전이 시행될 경우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도시지역에서 군사작전은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적이 도시를 공격해올 경우 주민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을 포기할 수는 없다. 다만, 도시지역의 경우 방어하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

도시지역을 방어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

56) U.S. Marine Corps, *Military Operations on Urbanized Terrain (MOUT)*, p. 3-1.

여야 할 것이다. 즉 방어해야할 경우는 도시내에 중요한 전략적/정치적 목표가 존재하거나, 주요 경제중심지를 보호하거나, 접근로 통제가 필요하거나, 병력을 절약하거나, 병력을 은폐시키고자 할 때이다.⁵⁷⁾ 동시에 도시지역을 방어하지 않을 경우는 방어나 공격이 불필요하거나, 우회가능하거나, 방어에 부적절한 상태이거나, 주변에 감제지형이 있거나, 외곽에서 교전하는 것이 유리할 때이다.⁵⁸⁾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균형되게 고려하여 방어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군대의 임무는 대부분 상급부대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 방어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지역 방어라고 하여 방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지형만 바뀌고, 민간인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을 뿐이다. 예를 들면, 도시지역이라고 하여 방어지대 편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방어와 동일하게 경계지역(security area)을 전방에 편성하고, 주전투지역(main battle area)에서 결정적인 전투를 준비하며, 후방지역(rear area)에서는 주전투지역에 대한 군수 및 행정지원을 제공한다.⁵⁹⁾ 다만, 이들의 크기는 야지에 비해서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은 비선형(非線型)일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과거와 같은 진지방어만으로는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진지방어와 기동방어의 효과적 결합이 중요해진다.⁶⁰⁾ 이 경우 상급부대에서는 기동방어 개념을 설정하더라도 예하 부대의 경우에는 대부분 진지방어의 개념을 적용해야할 것이다. 즉 전면의 소부대는 진지방어를 통하여 적의 전진을 중지시키고, 대부대에서는 예비대를 사용하여 포위섬멸을 하는 방식이 도시지역 방어작전의 기본개념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대급 이하 부대에서는 빌딩을 중심으로 진지방어를 편성하여 적의 전진을 거부하거나 적을 격멸하고자 노력하고, 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방어에 적용되는 원칙들의 대부분이 적용될 것이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비대는 준비되어야 한다. 대신에 상급부대에서는 진지방어에 비하여 더욱 위력적인 예비대를 보유했다가 고착된 적을 포위하거나 측면으로 공격하여 격멸한다.⁶¹⁾

57) Ibid., p. 3-1-3-2.

58) Ibid., p. 3-2.

59) Ibid., p. 3-12.

60) Ibid., p. 3-9.

61) Ibid., p. 3-10.

도시지역을 방어한다고 하여 반드시 도심지에서 시가전을 수행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외곽에서 방어할 수도 있고, 시내에서 방어할 수도 있으며, 시내의 경우에도 선형방어를 할 수도 있지만 핵심시설만을 방어하거나 유인격멸하는 매복형태를 펼 수도 있고, 축차진지를 통하여 치열한 방어작전을 전개할 수도 있다. 부연설명하자면, 도시외곽에서의 방어는 방어를 위한 중요지형이 존재하거나 도시에서 교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다수의 민간인 존재, 역사적이거나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존재 등)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시내 방어는 적이 강력하면서도 정밀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선택한다. 병력이 미흡하거나 병력을 절약하기 위하여 시내전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적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빌딩은 파괴할 수도 있고, 경계부대가 외곽에 파견되어 적과 접촉하거나 적의 전진을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시내의 핵심부분만을 방호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병력이 극히 제한될 때 사용한다. 유인 및 매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병력이 적을 때 지뢰 등으로 적의 이동을 방해한 다음에 매복한 지역으로 적을 유인하여 격멸한다. 도시지역은 매복하기도 좋고, 적이 도망할 수 있는 여지도 적어 매우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중심방어는 축차진지를 통하여 계속하여 전투하면서 지연전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⁶²⁾

따라서 도시지역을 방어할 것인가, 방어를 할 경우 진지방어와 기동방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어떤 방어개념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 당시 METT-TC에 의하여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만, 기존 야지에서의 방어개념에 비해서 도시지역의 방어개념이 어느 정도는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당시 상황과 여건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달라진 환경에 얼마나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지역이 방어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Ⅲ. 도시지역 방어에 대한 한국군의 실태

1. 한국군 작전지역의 도시화 상황

62) Ibid., pp. 3-9-3-11.

한국군의 일차적인 임무는 비무장지대의 남북한계선 이남에서 적의 전진을 차단하고 지역을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전계획도 전방지역에 구축된 진지들을 조기에 점령하여 최대한 전방지역에서 적의 전진을 저지해야 한다. 전방지역에서부터 수개의 전투지역전단(FEBA: Forward Edge of Battle Area)을 편성하여 두었다가 축차적으로 방어하면서 적의 공격력을 둔화시키고, 적이 공세종말점(culminating point)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면 반격을 하는 개념이다. 다만,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심지인 서울이 휴전선으로부터 4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서울 북방에는 축차지연전을 전개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벌기 위하여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것이다.

한국군의 경우 동부 산악지역(동해안 지역은 다소 예외)은 도시지역 작전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주로 산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발달된 도시들도 군사작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규모나 비중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부지역의 경우에도 동부에서는 도시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수도권 북방은 최근 들어서 급격한 도시화가 전개되어 작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적의 집중적인 공격이 예상됨에도 축차방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되고, 따라서 도시지역이라고 하여 포기하거나 군사적 사용을 회피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도시지역이 방어에 유리하다고 한다면, 수도권 북방의 도시화는 오히려 한국군의 방어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방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물이 그만큼 증대되었고, 공격자의 병력을 분산시키거나 화력의 집중을 어렵게 하는 요소는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군이 도심화된 수도권 북방의 지형변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유리하더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유리함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2. 북한군의 도시지역 공격 양상

북한군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올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추정하는 한 두 가지의 공격양상에 집착해서도 곤란하다.

군사작전은 만전지계(萬全之計)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양상에 대비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원과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격 양상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비의 우선성을 식별할 수는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군이 중점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는 북한군의 공격 양상은 수도권에 대한 제한공격이다. 서울을 신속하게 점령한 후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북한은 수도권이라는 한국의 핵심지역을 장악할 수 있고, 한국은 수도가 상실당한 상태에서 극도의 혼란과 전략적 불리함에 빠질 것이다. 이러한 불리함을 타개하려면 수도권에 대한 도시지역 공격을 감행하여 탈취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질이 될 수 있어 반격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공격에 많은 제약이 가해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상당한 민간인 희생이 나더라도 수도권 북방에서의 도시지역 전투를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을 점령하고자할 경우 북한군은 수도권 북방에 집중적인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 김포반도 등을 이용하여 기습적인 접근로를 선택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도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택이 단순하지는 않다. 수도권 북방의 경우 휴전선과 그 일부 이남지역만 돌파하면 바로 도심지이기 때문에 북한은 도심지로 조기에 스며들어 한국의 반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초기 돌파를 위하여 제한된 지역에 화학작용제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통상적인 전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를 포위 후 도시내부를 소탕하는 개념은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연속적으로 이어진 한국 수도권의 도시들을 포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미군이 이라크에서 실시한 도시지역 작전의 경우 2003년 초기의 이라크자유작전(OIF: Operation Iraqi Freedom)에서는 4월 2일 바그다드로 공격을 개시한 후 사담 국제공항 등 핵심시설만 장악한 채 전차와 장갑차 등으로 4월 4-6일간에 걸쳐서 위력수색을 실시하였고, 4월 7일 바로 제3사단의 전차 및 기계화부대들을 투입하여 시내를 돌파함으로써 1주일만인 4월 9일에 바그다드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⁶³⁾ 그러나 이후의 항구적 자유작전(OEF: Operation Enduring Freedom) 동안에 발생한 팔루자 공격의 경

63) 최영우, “현대 도시지역작전의 성격과 수행방안,” 『해병대』, 25호(2005년 6월), p. 63.

우 미군 민간 고용인 4명 살해에 대한 보복으로 2004년 4월에 특수부대 지원하에 미 제1해병기동군 예하의 2개 대대가 진입하였으나 민간인 사상을 우려하여 도시를 관통하는 대신에 외곽만 포위하였고, 2주간의 작전에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결국 그해 11월에 이라크보안군의 도움을 받아 작전을 어느 정도 완료할 수 있었다.⁶⁴⁾

통상적으로 도심지역은 공격부대에게 불리한데 그 이유는 건물로 인하여 전진이 제한되면서 화력의 집중이나 기동과 화력의 효과적인 결합이 어렵고, 무엇보다 주민들에 대한 부수피해(collateral damage)를 최소화해야 하는 등의 인도적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공격부대가 주민에 대한 부수피해나 인도적 측면을 전혀 개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민들을 자신들의 전진을 보장하거나 우리의 반격을 저지시키는 방패로 사용할 경우에는 공자에게는 도심지역이 오히려 이점이 될 수도 있다.

비록 북한이 어떤 개념으로 수도권 북방의 도심지들을 극복하고자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도심지역을 회피하거나 우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실적으로 도심지역을 우회하면서 서울로 전진하는 것이 어렵고,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도심지역 작전에 대한 군사적 어려움이 북한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은 도심지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우세한 한미연합군의 공군력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주민들을 그들의 전진을 보장하는 방패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육군대학에서도 “북한군의 일반적인 공격양상을 고려할 때 북한군은 주타격·보조타격방향에 위치한 도심지역을 최초부터 돌파형태의 공격을 실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⁶⁵⁾

만약 북한이 수도권 북방의 도심지역을 연속적인 목표로 설정한 다음에 순차적 또는 동시에 점령한다는 가정을 해보자. 북한은 한국군에 대한 집중적인 포격을 가하면서 야지를 신속히 횡단하여 도심지역으로 전진한 후 도심지역의 빌딩에 그들의 부대들을 분산시켜 은폐·엄폐를 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공공격이나 포격을 제대로 가할 수도 없고, 북한군이 어떻게 어느 지역으로 움

64) Ibid., pp. 64-65.

65) 육군대학, “한반도 전장환경을 고려한 도심지역 방어전술 발전방안,” 「군사평론」, 395호(2008년 10월), p. 355.

직이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다. 그러는 가운데 북한군은 빌딩을 통한 은폐·엄폐 및 야간을 이용하여 도시의 남쪽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하여 다음 도시까지 계속 전진할 수 있다. 실제로 수도권 북방의 경우 도시들이 거의 연결된 상태라서 한번 도심지로 진입하면 서울까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전진할 수 있다. 보병이 주를 이루는 북한군의 경우에는 빌딩의 은폐·엄폐를 이용한 전진이 매우 용이할 수 있다. 대규모 지상군의 북한군은 도시를 쉽게 장악할 것이고, 일단 도시를 장악하게 되면 보급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북한군의 전진이 아군의 화력에 의하여 곤란을 겪을 경우 주민들을 동행하거나 주민들과 같은 복장으로 이동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시가 북한군 전진의 양호한 보호막이나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북한군은 도시지역을 특별한 장애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도시지역 공격 및 방어에 따른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겠지만, 북한군에게는 도시 역시 전진 과정에서 활용하거나 극복해야 할 하나의 요소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한국과 같이 도시에 있는 민간인들을 통제해야하거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하여 우회하는 등의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육군대학에서도 북한군 도시지역 공격은 “전진과정에서 공격”과 “짧은 준비밀에 공격”으로 구분된다면서, “전진과정에서 공격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최근임무는 아군 제1세대 부대를 소멸하고 도시의 중심부로 진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⁶⁶⁾

3. 한국군의 수도권 북방 도시지역 방어개념

한국군은 수도권 북방의 도시지역에서 치열한 방어작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도시지역을 기피할 경우 효과적인 방어선을 준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이 야지로만 기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군사작전이 수행되는 장소는 방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가 정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최초 방어는 도시지역 외곽에서 적을 전진을 중단시킨 후 집중적인 화력을

66) Ibid., pp. 358-359.

퍼부어 섬멸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북쪽에 방어선을 점령하고 그 방어선을 연하여 강력한 방어진지와 그 방어선의 북쪽에 수개의 살상지대를 설치해야만 한다. 도시외곽이라도 하더라도 상당한 빌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빌딩이나 인공구조물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가지 방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지역의 경우 체계적으로 방어를 계획할 경우 방자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동서로 난 도로를 중심으로 축차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남북으로 난 도로를 연하여 매복지역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을 방어작전에 대한 장애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독특한, 또는 현대에 들어서 부각되고 있는 방어진형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인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다. 소개(evacuation)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소개에 따른 혼란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 살고 있는 곳에 그대로 있으라고 할 경우 민간인 살상자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북한군의 주접근로 상에서 도시지역 방어가 불가피한 지역을 일부 선정하고, 그 지역에서는 축차적인 도시지역 방어를 계획하며, 따라서 그 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후방지역으로 소개하는 선별적인 소개 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부녀자와 노약자만을 소개한 상태에서 남자들은 전투에 활용할 수도 있다. 소개를 위해서는 유사시 소개할 지역을 제공하고, 이동에 관한 사항을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군이 고민해야 할 사항은 어떻게 도시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유사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는 것이다. 당연히 이것은 제대별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기동방어의 개념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고, 분권화 작전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지역이라는 독특한 여건에 부합되는 방어의 세부적인 교리들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다양한 모의 및 실전적인 훈련을 통하여 점검하며, 그 결과를 통하여 하나 하나 작전계획에 반영시켜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시지역에서의 방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물망같은 방어선을 구축한다음 축차적으로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의 빌딩이 주는 이점을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거미와 양파”라는 개

념으로 거미줄처럼 물셀틈없는 방어선을 형성하고, 양파를 까는 경우처럼 하나의 방어선이 무너지면 바로 다음 방어선에서 저항을 계속한다는 제안⁶⁷⁾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도시지역 작전에서는 심리전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거리가 가까워 서로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은 쉬운 반면에 좁은 지역에 피아가 혼재함으로써 심리적 긴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적을 심리적으로 교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군대가 적의 심리전에 흔들리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을 보장해야하는 이중적인 과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심리전을 효과적으로 준비 및 수행할 경우 전투없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도시지역 방어의 경우 사계(射界)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적이 건물 뒤에 은폐·엄폐하여 표적이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저격수를 편성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일반전투원이 1명의 적을 사살하는 데 사용된 탄약은 7,000발, 2차 세계대전에서는 25,000발, 베트남 전쟁에서는 50,000발이었다고 하는데, 베트남전에서 저격수가 적 1명을 사살하는 데는 1.7발만 소요되었다고 한다.⁶⁸⁾ 따라서 다양한 사항에 있어서 기존 개념과는 다르게 작전을 준비하고, 필요한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지역 작전에서는 도시에 발달된 지하도나 지하시설을 잘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항도 중요할 것이다. 한국의 도시들은 다양한 지역에 지하도를 설치해두고 있고, 대부분의 빌딩은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지하를 통하여 은폐 및 엄폐된 상태로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지하철과 같은 연속적인 지하공간이 존재할 경우 도시지역 작전의 승패는 이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한국군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지속하는 데서 벗어나 수도권 북방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화가 한국군에게 제시하는 도전요소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하며, 그러한 방법을 구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수정하고, 대비태세의 내용을 수정 및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 도시지역 작전에서 승리할 수

67) 장영철, “‘거미와 양파’로 본 도시방어 작전,” 『육군』, 247호(2000년 10월).

68) 이문석, “도시지역 작전간 저격수 운용 발전방향,” 『군사평론』, 415호(2012년 2월), p. 150.

있는 모범답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IV. 한국군의 과제

1. 도시화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필요

한국이 광범하게 도시화된 현실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전체 군대 차원에서 도시화가 한국의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 전방지역은 물론이고, 후방지역에서도 도시화가 유사시 방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한국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도시화가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한국군의 유사시 반격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것인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도시화는 지상작전에 가장 현저한 영향을 끼치겠지만, 공군의 작전과 관련해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도시화된 한국 영토에서 전투지역전단이 형성되었을 경우 도시지형은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을 어렵게 만들 것이고, 대공화기의 위치식별이나 피아식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도시화 상황에서 지상군과 공군이 협조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욱 긴밀한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정밀유도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도시지역 공격을 위한 특수탄을 제작 및 사용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육군항공의 경우에도 도시지역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다양한 사항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정교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⁶⁹⁾

수도 서울 방어의 중요성과 수도권 북방의 광범한 도시화를 고려하여 서부지역의 지상군 방어개념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형과 민간인 요소에서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방어개념을 수정 및 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업이다. 파주, 문산, 일산과 같은 대규모의 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졌고, 그 사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으며, 서울과 거의 연결되었을 정도로 주요 접근로 주변

69) 도시지역 작전에서의 육군항공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용희, “도시지역작전 시 육군항공전력 운용방안 연구,” 『군사평론』, 373호(2005년 3월), pp. 87-118.

으로 수많은 건축물이 구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방어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수도권 북방의 경우 기존의 진지방어개념 일변도에서 기동방어 개념을 더욱 많이 가미하는 형태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지역 작전에서는 모든 상황이 불확실하면서 전투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지방어와 기동방어를 결합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군은 지금까지 진지방어 위주로 모든 방어개념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수십년을 거쳐서 보완해온 방어개념이나 방어선을 변경하는 데 따른 저항과 위험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진지한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타당성과 공감대를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도시지역으로 방어자산으로 인식 및 활용

수도권 북방에서 도시지역 전투를 회피하면서 방어를 조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통발달의 도로와 건물이 대부분의 작전지역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야산의 진지 위주로 방어선을 편성할 경우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 METT-TC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무라고 한다면, 수도권 방어라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형의 변화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도시지역을 방어의 방해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도시지역은 방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시지역의 건물과 건물 뒤의 도로망은 방어하는 부대가 전투진지 및 전투지원 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구조이기도 하다. 단순히 본다면 도시지역은 평지에 시멘트로 진지를 만들어둔 상태일 수 있고, 도로라는 이름으로 교통호가 잘 발달되어 있는 야지의 방어선과 다르지 않다.

도시지역 작전에 있어서 제대로 활용하면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군사작전에 결정적인 제약이 될 수 있는 것은 민간인의 활용도이다. 체계적인 민·관·군 협력 및 통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면, 도시지역 작전은 전투원이 배가되면서 전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대가 민간인의 보호임무까지 수행해야 하거나 민간인의 사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약사항으로 인하여 제대로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민간인들을 방어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 및 국민들의 자발적 이해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한국군은 도시화가 주는 제한사항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도시화의 장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오히려 병력을 절약하거나 북한군의 전진을 효과적으로 차단 및 격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방어개념 발전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군은 진지방어와 기동방어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수도권 북방의 방어개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준비된 선방어 중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보존하되 예비대의 활용을 증대시키는 등 기동방어의 요소도 더욱 많이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도시 외곽에서 공격해오는 적 부대의 주력을 격멸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도로전부 위주 중심방어”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도시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적은 도로를 통하여 접근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한국군이 도로를 중심으로 중심깊게 방어할 경우 공격해오는 적을 계속하여 격멸할 수 있다. 육군의 경우 한때 이러한 개념에 의하여 준비해둔 사항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진지 등을 부분적으로만 보강해도 금방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도로에서 적을 격멸하고자 한다면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적의 접근을 거부할 수 있도록 지뢰매설 등 사전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 내에서 축차방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방어개념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적이 저항을 받지 않은 채 도시를 점령하고 있을 경우 주민들이 인질로 잡힐 가능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적을 제대로 관측하거나 화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군은 도시 내에서 축차적인 방어선을 설정하고, 적의 이동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며, 적을 특정지역으로 유인하여 살상할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거미와 양파” 개념에 의하여 끈질긴 저항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도시지역을 하나의 전투지대로 할당하는 개념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시의 경우 면적은 좁지만 다수의 빌딩으로 인하여 전장이 3차원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은 평면 개념으로 전투지대를 할당할 경우 병력이 미흡해지고, 도시지역 전투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다. 특정 도시의 방어책임을 특정 부대에게 할당하여 “일산 방어부대” 또는 “문산 방어부대” 등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 방어의 경우 충분한 병력을 보장하거나 지대를 좁게 배분하고, 외곽을 다른 부대가 다소 넓게 담당하는 등으로 도시를 기준으로 방어의지를 조직화하는 개념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4. 민간과의 협력 및 민간자산 활용 조치

도시지역에서 방어작전을 전개할 경우에는 당연히 민간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진다. 군인들의 경우에는 민간인들을 전쟁과 상관없거나 오히려 전쟁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도시라는 자체는 응집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속하는 능력이 있고, 스스로 상황에 적응한다.⁷⁰⁾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상당기간 생존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군인들에게 절대적인 협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 작전을 준비하는 군대는 민간인과 민간인의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관·군 통합작전이 조직적으로 준비 및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인이 기여한 내용이나 피해를 감수한 사항에 관해서는 전후에 그것을 보상해줄 수 있는 법적인 조치까지도 사전에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인의 소개(evacuation)도 중요한 사항이다. 민·관·군 통합작전을 수행하더라도 부녀자와 노약자들은 소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소개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거나 소개를 계획대로 이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민간인이 군사작전에 주는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군은 이동목적지와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민간인드러이 자발적 협력을 유

70) Roger J. Spiller, *Sharp Corners: Urban Operations at Century's End*, p. 99.

도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지역 작전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점에서 기 설치되어 있는 민간의 CCTV를 활용하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주요 지역에는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이것을 확보할 경우 적의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따라서 평소부터 군에서는 해당도시와 협조하여 유사시에 CCTV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시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연습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5. 도시지역 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노력

무엇보다 먼저 도시지역 작전, 특히 도시지역 방어에 대한 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의 경우 도시지역 작전에 관한 교범이 발간된 바도 있으나 개념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 내용도 한국과 다른 미군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미군의 교리는 원정작전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도시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한국군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에서 우리의 주민들과 협력하여 도시지역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 전제가 다를 수 있다. 또한 미군이 연구한 도시지역 전투사례는 특정한 도시를 포위한 후 완전한 통제력을 회복하는 데 관한 것이지만, 한국이 필요로 하는 도시지역작전의 연구는 북한의 전진로 상에 있는 도시지역의 방어, 특히 포위가 아니라 돌파되는 상황에서 방어해야하는 과제를 연구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현 상황과 여건에서 어떻게 싸우고 준비해야하는가를 충분히 토의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개념적 내용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전술과 전기까지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도시지역 작전에 대한 교육 및 훈련도 필요하다. 간부들의 경우 다양한 학교 및 수시교육 등을 통하여 도시지역 작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습하고, 교육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성화해야할 것이다. 특히 합동참모대학 정도의 수준에서 작전계획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영관급 장교들을 대상으로 도시지역 작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수부대가 특수한 경우에 수행하는 것이 도시지역 작전이 아니라 일반부대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임무가 도시지역 작전이라는 수준으

로 그 비중을 격상시키고 전군적인 차원으로 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훈련의 경우 작전 및 전술부대 차원에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부대의 전투지대를 할당하며, 체계적으로 진지를 편성하고, 실제 적이 공격해올 때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연습해두어야 할 것이다. 야지전과 다르게 도시지역에서는 생각하지 못할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도시지역에서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하거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모의기술을 통하여 가상으로라도 실제처럼 만들어서 훈련해야 할 것이다. 소부대의 경우 모의시설을 만들어두고 훈련할 수도 있다.

도시지역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는 특정도시를 방어하는 데 적합하도록 부대의 편성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도시지역 작전에 부합되는 무기체계를 선정해야 할 것이고, 소부대 단위로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도시지역 작전의 경우 저격수들을 각 부대에 배치하고, 이들에게 저격용 소총 등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보급할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 작전에 부합되는 무기 및 장비의 개발도 필요할 수 있다. 건물 사이에 정확한 간접사격을 가할 수 있는 포병사력 기법, 기재, 탄약을 개발해야 할 것이고, 다양한 무인정찰기 및 로봇 등을 통하여 정확한 정찰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부수피해의 가능성이 적은 비살상 무기체계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서도 조준경 등이 부착되어 저격이 가능한 저격용 소총도 개발할 필요가 있고, 건물 사이 또는 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적의 이동상황을 실시간에 감시하거나 아군의 사격효과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야간작전을 위한 야간투시경, 정확한 위치식별을 위한 GPS 장비, 건물의 파편으로부터 보호위한 보호안경, 건물내 폭발로 인한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귀마개, 그리고 도시지역을 포복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팔 및 무릎 보호대 등 도시지역 작전의 특성에 부합되는 세심한 사항을 사전에 생각해 내어 준비해둬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변화되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는 측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여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변화에 대한 절박성과 변화 방향에 대한 타당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현재 상태를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을 안전하거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선호한다. 그래서 변화의 요인은 동일한데도 전쟁에서 승패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다. 현실안주(complacency) 하는 측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측에 의하여 패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전쟁사의 결론이다.

한국의 경우 국토의 90% 정도가 도시가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화의 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산지의 경우에는 숲이 워낙 우거져 전진 자체가 어렵고, 도시를 통하는 도로들이 군사작전의 주보급로로 지정될 것이라고 한다면 도시지역 작전은 장차의 전쟁에서 일상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특히 수도권 북방의 경우에는 도시지역 작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북한군이 어떤 양상으로 공격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전사의 예에서처럼 도시를 우회하거나 포위한 후 소탕하는 방식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신속하게 서울로 진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한군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수도권 북방의 도시들을 조기에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서울로 신속하게 접근하고자 할 것이다. 도시지역을 그들의 전진을 보호하는 디딤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군의 공격에 대하여 우리의 현 태세가 어떠하고,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인가가 수도권 북방 방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

METT-TC 중에서 지형과 민간요소가 심각하게 변화하였음에도 과거와 같은 동일한 방어작전 수행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타당하지 않다.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 민간인과의 혼합전이라는 상황에 부합되도록 새로운 개념을 구상해야할 것이고, 그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작전계획을 비롯한 전쟁대비의 방향을 전환시켜 나가야할 것이다.